



거룩한 부르심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거의 들리지 않는 미세한 소리도 있습니다. 영혼을 맑게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둡고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도 있습니다. 고요한 자연의 소리에 화내는 사람 없고, 거슬리는 소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힘을 주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화를 일으키는 음성도 있습니다. 앞의 음성을 가진 사람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뒤의 음성을 가진 이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을 부르지만 누군가로부터 불리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곁에 온다 해도 내 영혼은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더 깊은 심연에서 나를 불러줄 어떤 음성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를, 내 영혼을 채워줄 영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채근하지 않으시고 인내로이 기다리십시오.

가톨릭교회는 부활 제4주일을 성소 주일로 지냅니다. 성소 주일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성소에는 가정을 이루는 성소가 있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독신을 선택하는 성소도 있습니다. 성소 주일에 우리 교회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루카 10,2)는 주님 말씀을 상기시키며, 우리 신자들이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사제로 살면서 미래 교회 걱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교구 성소국 소임을 하면서 성소자 부족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고민도 깊어집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 우리 교구는 어떤 모습일까? 새로 사제나 수도자가 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있기는 할까?

지난해 우리 마산교구 광주신학교 입학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은 두 명입니다. 지난 1월 세 명의 부제가 사제로 서품되었고, 한 명의 부제가 내년 사제 서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2024년 광주가톨릭대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지요, 감사하다 해야 할지요. 어느 교구에서는 올해 신학교 입학생이 아예 없었는, 또 어떤 교구에서는 서품식 자체가 없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교우 여러분, 성소자 개발과 육성에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교구의 미래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최문성 마르코 신부 | 교구 성소국장

주일 진례

제 1 독 서
화 답 송
제 2 독 서
복 음사도 2,14-36-4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1베드 2,20-25
요한 10,1-10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번째 성소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소 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에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하느님 섭리인 이 계획은 하느님 백성 구성원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오늘날 세상의 고통과 희망, 도전과 성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저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이 성찰하고 기도할 때에 “은총이며 사명인 성소”라는 주제를 길잡이로 삼기를 요청합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부르심이 은총이고 온전한 선물이며, 이와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경이롭게 되새기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 선택하시어”

바오로 사도는 우리 앞에 놀라운 지평을 열어 줍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창조 이전에 ……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에페 1,4-5)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충만한 때의 삶을 엿보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과 비슷하게 ‘품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사랑과 함께 창조되었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빛어졌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파견”을 내포한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사명이 없는 성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행복과 충만한 자기실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의 하느님 부르심은 우리를 침묵할 수 없도록 하는 체험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 그리고 요한의 첫째 서간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 본 것, 곧 사람이 되신 말씀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1요한 1-4 참조)

5년 전, 저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에서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의 사명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23항)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저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복음의 기쁨」, 273항)

함께 부름받아 모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저마다 이름으로 당신께 부르셨던 때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세우시어,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며 마귀를 쫓아내도록 파견하셨습니다(마르 3,13-15 참조).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새로운 공동체의 초석을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출신 사회 계층과 직업이 각기 달랐고, 그 누구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둘씩 파견하신 다른 제자 일흔 두 명을 부르셨던 것처럼, 복음은 또 다른 부르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루카 10,1 참조).

은총이자 사명: 선물이자 임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소는 선물이자 임무, 새 생명과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번 성소 주일을 위한 기도와 활동의 계획들이 우리의 가정, 본당 공동체, 축성생활 공동체, 교회 단체와 운동 안에서 성소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무관심을 몰아내고 연민과 공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1964년 4월 11일에 제1차 성소 주일을 위하여 마련하신 기도가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의 거룩한 목자이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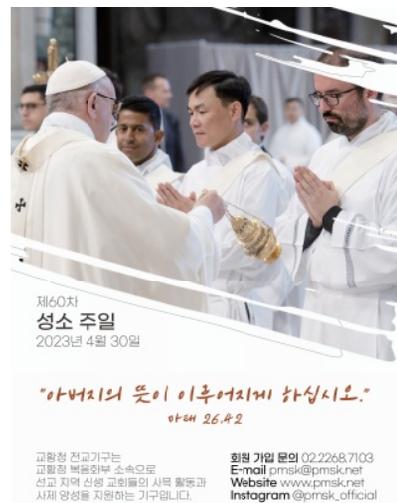
사도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으니, 젊은이들 가운데 신실하고 너그러운 영혼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이끄시어 주님의 제자요 봉사자로 만들어 주소서.

그 젊은이들이 모든 이의 구원이라는 주님의 목마름에 동참케 하소서. ……

온 세상의 지평을 그들 앞에 열어 주소서. ……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주님의 신비체인 교회를 이루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마태 5,13-14)이 되게 하소서.”

동정 마리아님께서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제60차 성소 주일 2023년 4월 30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태 26,42

교황청 전교구부는 교황청 복음화부 소속으로 선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원형 가압 문의 02-2268-7103
 E-mail pmski@pmsk.net
 Website www.pmsk.net
 Instagram @pmsk_official

교황청 전교구부 한국지부

젼마가 던고 선 이름들

이영자 젼마 시인/ 가톨릭문인회

한세상 살아가려면 무슨 일이든 배워 뒤야 한다고
 어른들이 말했어
 돌아가신 부모님 탓하지 말고
 솜씨 좋은 새언니에게 배우라 타일렀어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만 사람이 되는데 나는
 언니가 요리하는 부엌을 바느질하는 안방을
 피해 다녔어 그야말로 까마귀 활 보듯이~

조카들이랑 어울려 구슬치기 딱지치기로 신나게 놀았지요
 놀다 놀다 나이 들어 시집을 갔는데
 매사에 서툰 아내에게 남편이 별명을 달아 주더군요
 포덕씨(바보!)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토라진 날
 저녁밥 짓다 밥을 태우자 별명을 고쳐 주더군요
 또선생!

그날부터 시택식구 앞에서도 처가에 가서도
 또선생 또선생 불러대니까
 영문 모르는 오빠 여동생 시집가 잘 산다고
 친정에 갈 적마다 씨암탉 잡아 주고요

아득한 그때 반성하며
 밥상 한 번 제대로 차리고 싶는데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꿀맛 같은 천상살이 서른 해 넘게 하고 있어요
 이다음 젼마가 찾아가면
 알아보거나 할는지 모르겠네요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며 온정 가득한 지세포본당

이준호 라파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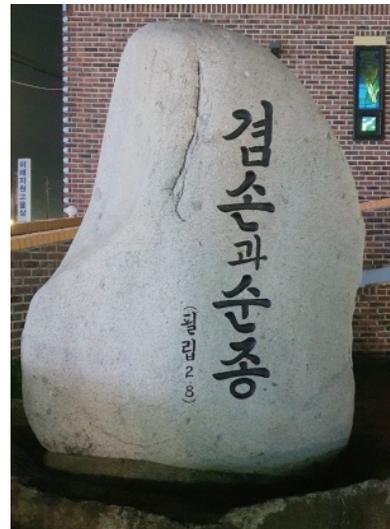


신거제대교를 건널 때 지는 해를 보았다. 장엄하고 붉은 해는 일출만큼이나 강렬했다. 밀려오는 바닷바람에 완전한 해국에 이르렀음을 알았고 마음도 들떴다. 이내 도착한 지세포성당은 차에서 내리자 성경 벽화가 눈에 띄었다. 이정화 글라라 사무장이 흥대 미대의 자매님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린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계단을 오르기 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아기자기하고 볼거리 많은 성당이었다. 여섯 개의 브레시디움과 꾸리아가 활동 중인 지세포성당은 성모상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얀 백합처럼 빛나는 아치 별빛 아래의 성모님은 성전에 오르는 모든 이를 만나셨다. 반드시 성모상을 지나야 성전에 오를 수 있었다. 성모님을 통해 비로소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이 아니겠는가.

신앙은 수사학과 같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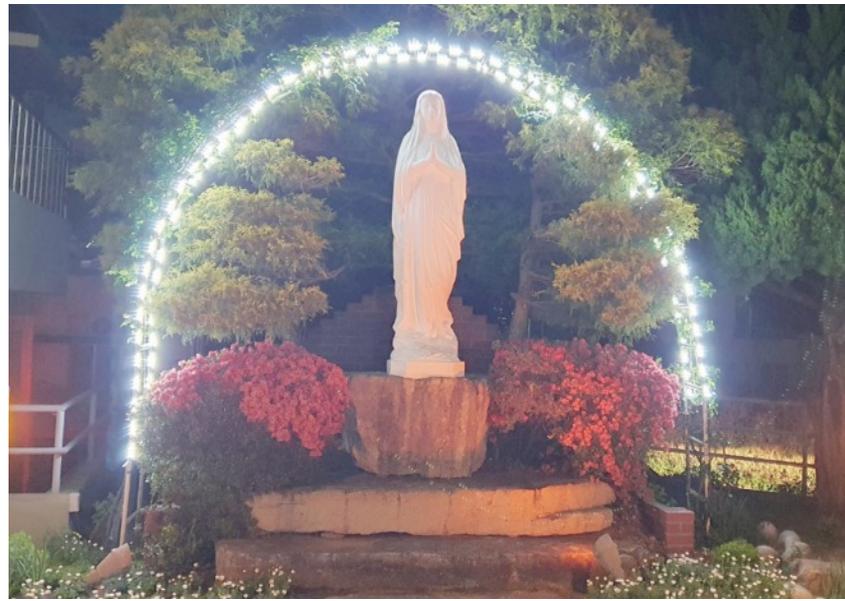
계단 원편 입석에 반듯하게 새겨진 '겸손과 순종'이 눈에 들어왔다. 성서적 의미가 있겠으나, 전동혁 베드로 주임 신부는 가장 겸손한 사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장성기 요셉 회장 또한 신자들이 사제를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화합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을 자연스레 구현하고 있음이다.

미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학과 예술 그리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베드로 신부는 '하느님께로'라는 사목방침에 대해 신앙은 삶에서 수사학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문학과 예술이 인간의 삶에서 아름다운 옷에 비유되듯 신앙 또한 그렇게 보았다. 더욱더 아름답게 고양될 수 있는 인간의 생. 영성의 삶을 채색하는 삶은 성경 벽화를 그리는 화가의 마음과 같으리라. 주임 신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또한 알 수 있듯이, 사람들과 소통하며 단합이 잘되는 지세포성당이다.



주일학교는 교회의 미래

아울러 지세포본당은 주일학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 일본 나가사키로 2박 3일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주일학교 학생 스무 명과 같은 수의 어른이 함께했다. 독지가의 후원으로 운영된 이 행사는 매우 호응이 좋았다. 다음 일정으로 오사카를 고려하고 있다. 교회의 학생들을 꾸준히 키워내 성소를 희망하는 학생도 3명 정도이다. 주임 신부는 주일학교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중하다고 했다.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이 고르게 있는 지세포성당은 생동감 있고 세대 간의 격차도 적다. 서로 간의 이해와 단합에서 나오는 힘이라 하겠다.



요셉 회장은 성당이 작지만 예쁘다고 했다. 아담한 성당에 밤을 수놓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웠다. 미사에 참례한 신자들은 훨씬 많아 보였다. 교중미사에서 이백여 명을 채우고도 넉넉한 지세포성당의 성전이었다. 요셉 회장은 자연스럽게 예구공소 이야기로 이어갔다. 신앙촌에서 출발했기에 주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신자이다. 128년의 역사를 지녔다고 글라라 사무장이 알려주었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피정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복자 윤봉문 요셉의 형인 윤경문 베드로의 기념 성전이기도 한 이곳은 인근에 '공곳이'도 있어 수선화를 비롯한 아름다운 꽃들로 즐비하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 결속을

지세포본당은 우여곡절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2003년 가을에 태풍 매미가 불어 닥쳐 성당의 지붕이 절반이나 파손되어 임시 성전을 마련하였다. 성전 복구를 위해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듬해에 박정일 미카엘 주교의 주례로 복구 감사미사를 올렸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기도와 협력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그것이 오늘날 교우 간의 단합과 결속으로 이어오고 있음을 그들은 잘 안다.

봉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성전 정면에서 두 팔 벌려 방문객을 맞이하는 예수성심상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모든 이를 포용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듯한 그 모습에 정화의 마음이 샘솟는다. 그 아래 왼편에 있는 종은 공소 시절부터 교회와 함께해 왔다. 지금도 장례미사 때에 울린다고 한다. 연례회 활동도 활발한데 최근에는 연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당을 돌며 지세포본당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분과에서도 매월 일정 금액의 모금액을 어려운 4가구에게 전하며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지세포본당은 인근에 복자 윤봉문 순교성지가 있어 행운이다. 복자 윤봉문 순교성지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힐링하기에 참 좋은 곳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순례자들이 많은 성수기에 거제 다른 본당들과 함께 성지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관광버스가 10대씩 몰려들 때면 야외미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트럭으로 물품들을 나르며 식당도 운영한다. 주보성인인 성 시몬을 모시고 지역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지세포성당은 2022년에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바닷길을 보며 걷는 거제 순례길은 늘 아껴두고 보는 보물 같았다. 시간을 내어 조금씩 음미하고 싶은 길이었다. 지세포성당의 따뜻한 인정과 이야기들 그리고 복자 윤봉문 순교성지의 대숲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도 모두 충만한 은총이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이재철(아드리아노) 신부
2006년 5월 3일

견진성사

일시: 5월 7일(주일)
장소: 월영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임마누엘 장학회

일시: 5월 2일(화) 11:00
장소: 교구청

신앙대학

일시: 5월 6일(토)~7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5월 7일(주일) 10:30
장소: 남성동성당

위원회/기관/단체

마산장애인복지관 작품전시회 '나의 나뭇'

일시: 5월 2일(화)까지
장소: 롯데백화점 마산점 더 갤러리 (지하 2층 영풍문고 내)
주최: 마산장애인복지실현을위한연합회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70·8798·4807
▶ 무료 관람이니 많이 와서 봐주세요.

217차 ME주말 안내

일시: 5월 19일(금) 19:00~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신청(문자 발송- 부부 이름 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살ם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5월 7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도박문제로 힘드시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한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7월 12일~14일/ 10월 2일~4일/ 10월 16일~18일/ 10월 31일~11월 2일/ 11월 28일~30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피정의집 대구 포교성베네딕도 수녀원 영성관(4차)
참가비: 25만 원(2박 3일)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재속맨발가르멜회 마산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22일(월) 10:00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5월 1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장의 비결	두현자 울리안나(의정부교구)	권창현 요셉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5월 7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꽃요셉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분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셉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익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중운(클레멘스)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마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 예경 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담당자 010·3191·8315

재속 프란치스코회 영성특강 안내

일시: 매월 2주 토요일 11:00~13:00
 장소: 칠암동성당
 대상: 누구나

주제: 프란치스코의 경제
 강사: 김일득 모이세 신부(ofm)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모집: 5월 31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만 18세 ~55세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기 (1년)교육 이수후 입회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 6월 30일(금)까지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중 아씨의 성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 미혼 남, 여 젊은이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청년(유프라) 담당 010·4559·5134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제15기 어머니학교



제15기 어머니학교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어머니학교에는 장성근 에단 신부(사목국 부국장)를 비롯하여 봉사자 및 참가자 18명이 함께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1회 한국가톨릭 농아인의 날 행사



한국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한국가톨릭 농아인의 날 행사가 4월 17일 제주교구에서 있었다. 우리 교구에서는 농아인들과 두 명의 수도자를 비롯해 12명이 참석하여 성이시들 삼위 일체 대성당에서 450여 명의 전국 교구 농아인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2박 3일간 용수성지를 포함한 제주도 내 여섯 군데의 성지를 순례하며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입타(판관기 10장 6절-12장 7절)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판관 10,6-16에는 판관기의 신학적인 도식, 곧 죄-심판-울부짖음-구원의 도식이 다시 한 번 언급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역사가는 그들이 주변 일곱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에 주님께서서는 진노하시어 그들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의 억압을 받게 하였습니다. 특히 요르단 건너편 길앗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암몬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암몬족은 요르단을 건너 유다와 벤야민과 에프라임 집안도 공격하였고, 이에 이스라엘이 심한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느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시 주님을 섬기면서 하느님께 울부짖었고, 주님께서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판관 입타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암몬족이 길앗을 공격하였지만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이끌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앗의 수령들은 입타를 찾아갑니다. 그는 힘센 용사였지만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쫓겨나서 건달패의 대장이 되어 국경 근처인 톱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길앗의 수령들이 그에게 지휘관이 되어 줄 것을 청하자 그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를 길앗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수령들은 이에 동의하였고, 길앗의 미즈파의 성소로 가서 주님 앞에서 이를 엄숙히 다짐합니다.

입타는 어떻게든 길앗의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깃뻏힌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활용합니다. 먼저,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암몬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전쟁의 이유를 묻게 합니다. 암몬 임금이 아르논에서 야벳까지 이르는 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그는 다시 사절을 보내어 문제의 땅은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임금 시혼에게 속한 땅이었으며, 시혼 임금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자 전쟁으로 빼앗은 땅이고, 지난 300년간 암몬은 한 번도 이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암몬 임금은 입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평화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이때에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고, 그는 암몬족을 치러 올라갑니다. 입타는 누구보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대신에, 주님께 한 가지 서원을 발합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신을 맞으러 맨 먼저 나오는 사

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노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암몬족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스무 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암몬족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손북을 치고 춤을 추며 그를 맞이하러 나온 딸을 보고 입타는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서원은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입타의 딸은 아버지께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청하여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동정으로 죽는 자신의 신세를 통곡하며 보냈습니다. 두 달 후 딸이 돌아왔을 때 입타는 딸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이 비극은 선부른 맹세의 해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4-37)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입타의 딸을 제물로 바치다
(사우샘프턴시 미술관에 있는 조반니 바티스타 피토니의 작품)
출처: 가톨릭신문

새 교구청사 축복식 연기하였습니다.



마산교구는 2021년 6월 19일(토) 오후 2시, 교구 신청사 신축부지(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447번지)에서 배기현 교구장 주교 주례로 기공식과 대지 축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사정으로 힘들었지만 2023년 3월 새 교구청 건물을 완공하고 창원시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교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건물이 들어선 곳은 옛 마산 국군통합병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전체면적 140,359㎡(42,458평)이며 임야 65,982㎡(19,959평), 대지 73,038㎡(22,094평), 답 1,339㎡(405평)입니다. 신축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 복합건물로 연면적 9,302㎡(2,819평)이며 성당과 주교관 사제관 수녀원도 내부에 있습니다.

금년 3월 22일(수) 새 교구청사로 이사했습니다. 오동동 옛 교구청은 청소년국에서 운영하며 지금까지 해 오던 사목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진전면 새 교구청사 축복식 날짜를 5월 4일로 잡았지만 미루기로 했습니다. 교구장 주교님 탄생하시어 새 주교님께서 축복식 주례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교우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산교구 새 교구장 주교님께서 곧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새 주교님과 함께 아름다운 축복식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은혜로운 부활시기 되십시오.

천주교마산교구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은근

교구청 신축기금 현황

2023.03.31. 기준

수입		지출	
전도금(교구지원금)	4,285,000,000	설계비	521,330,000
본당	11,282,274,483	건축공사비	12,911,760,000
사제	770,690,600	직영공사비	4,689,340,000
교구개인	528,552,125	추가공사비	1,496,299,950
교구단체	896,808,213	감리비	345,825,000
소계	17,763,325,421	조사비(지질조사 외)	33,465,000
타교구	1,550,000,000	소계	19,998,019,950
외부개인	712,695,510	제세금 및 수수료	21,282,272
외부단체	464,000,000	비품비	438,457,130
소계	2,726,695,510	운영비	91,359,150
예금이자	131,951,086	행사비(기공식)	338,800
잡수입	4,079,770	소계	551,437,352
소계	136,030,856		
합계	20,626,051,787	합계	20,549,457,302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간: 2023년 2월 1일~3월 31일

▶ 총액: 292,994,359원

1. 사제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구성진(7차)	600,000	이원태	4,800,000
김유겸	4,800,000	이재혁(6차)	2,400,000
김형렬(21차)	400,000	이창섭	5,000,000
서정술(7차)	600,000	정진국	4,800,000
이상록(22차)	400,000	계	23,800,000

2. 교구 내 기관, 시설, 단체

명칭	금액
명인건축사사무소	2,000,000
장평본당 여성협의회	5,000,000
함양본당 운산공소	1,000,000
계	8,000,000

3. 교구 내 개인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오베드로	1,822,425	익명(팔용동)	200,000
조준영(2차)	1,400,000	익명(2차)	500,000
한행자(4차)	100,000	계	4,022,425

4. 교구 외 개인 **계 1,740,005원**

남경애, 박기선, 신옥선, 이동구, 이세원, 정현호(광주 중동), 황정철

5. 전례용품 봉헌 **계 172,150,000원**

구분	성명
제대십자가	손미희
	이승환
	익명
제대	윤순자
	익명
	익명
감실	윤순자
	백주영
	서혜진
감실용 성합	익명
	하채원
	황미숙
성작과 성반	익명
	익명

구분	성명
성당 독서대	박한웅
성당 해설대	익명
십자가의 길(14처)	김효민
장의자	박수현
성전 문(1세트)	박수현
주수대	칠원본당 제대회
스테인드글라스(우측창, 천창)	윤순자
향로 향그릇	이숙자
고해틀	익명
협탁(1개)	이수용
성모상	익명
경당 문(1세트)	박수현
대회의실 십자가	익명
국장신부 책상, 의자(3세트)	정수인

6. 본당

▶ 기간: 2023년 2월 1일~3월 31일

▶ 합계: 83,281,929원

■ 거제 100,000원

■ 경화동 290,000원

■ 금산 2,700,000원

· 완납: 강은우(미카엘), 김형숙(유스티나), 전한진(안셀모)

■ 대건 7,370,000원

· 완납: 서여원(올리아)

■ 대방동 2,550,000원

· 완납: 김정오(가브리엘), 이경미(프란치스카), 이종해(요한)

· 분납: 김서현(안나), 이주형(요한), 전상조(요셉), 전석만(베드로), 진우영(스테파노), 천무환(세례자요한), 한미영(세실리아)

■ 대산 4,180,233원

· 완납: 조영수(방지거), 우인범(세영알렉시오), 윤시문(시몬), 황태만(도밍고)

■ 덕산동 1,380,000원

· 분납: 김종진(분도), 김진한(야고보), 신숙(말가리다), 유영숙(모니카), 이상진(바오로), 이재홍(이냐시오), 이종만(야고보), 임금(루피나)

■ 명서동 4,205,000원

· 완납: 강영혜(올리아), 박재우(안젤로), 안정모(비오), 정진규(아브라함)

· 분납: 강지현(베로니카), 고민정(안젤라), 구인숙(로사리아), 기봉현(안젤라), 김영희(막달레나), 김은선(아네스), 김태근(요한), 박은지, 서상우(요셉), 이미란(세실리아), 이상수(베네딕도), 이의렬(대건안드레아), 장지수(요셉), 전운경(세실리아), 정동열(미카엘), 최기은(살레시오)

■ 문산 380,000원

■ 반송 8,000,000원

· 완납: 고제성(바오로), 김원길(요한), 김준형(라파엘), 남준

섭(스테파노), 안혜경(안나), 이상구(요셉), 이순자(마리아), 이재우(임마누엘)

· 분납: 김국태(프란치스코), 박종은(라우렌시오), 이현재(니콜라오), 이효경(요한보스코), 차경섭(베드로), 하정화(아가다)

■ 봉곡동 2,720,000원

· 완납: 김영희(바울리나), 김진규, 김태영(테오도로), 문혜경(루피나), 박선옥(마리아), 박영옥(아네스), 서창호(아오스딩), 송창현, 윤영자(젼마), 이성민(수산나), 조이용(마티아)

■ 복신동 1,720,000원

· 완납: 김예준(미카엘), 김종균(마티아), 박영돌(안젤라), 유준상(마리노), 한승지(카롤로)

· 분납: 김지영(로사), 강현주(로사)

■ 사림동 2,330,000원

· 완납: 박무훈(요한보스코), 이승화(대건안드레아), 조경훈, 조임숙(아네스)

· 분납: 강승우(베드로), 김순희(레지나), 박민용(안토니오), 방승태(요한), 이승훈(베드로), 이정태(요한), 정순녀(엘리사벳)

■ 사천 1,250,000원

· 완납: 권영선(마리나), 송배영(요셉), 최전모(콜베)

· 분납: 강기갑(로벨도), 노승주(사도요한), 박중명(미카엘), 안숙연(마리아), 오남영(마리아), 이한국(베드로)

■ 사파동 3,560,000원

· 완납: 김승언(알베르토), 박창욱, 서상운(미카엘), 유상목(미카엘), 최성석(바오로)

· 분납: 고순배(스콜라스티카), 김길호(다마소), 김대수(안드레아), 김영석(프란치스코), 김형철(베네딕토), 김혜진(카타리나), 박선옥(베드로), 박희지(빈첸시오아바울), 서재준(요한), 이동엽(), 이유홍(요한), 정재억(도미니코), 황성진(바오로)

· 추가: 박형근(마르코)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자 명단

■ 삼계 2,210,000원

- 완납: 김희정(미카엘라), 박균식(시몬), 박재순(글라라), 양성환(라우렌시오), 이진자(보나), 이지혜(임파꼴랏다), 허미영(카타리나), 장혜숙(마리아), 제진호(사도요한)
- 분납: 이경숙(아네스), 구은길(베드로), 김용순(수산나), 김경란(아네스), 오정택(요셉), 이은경(펠라지아), 김영남(안젤라), 정연석(로마노)

■ 상남동 942,000원

- 완납: 김수학(비오), 박경남(안나), 이상욱(토마스)
- 분납: 박신석(바오로), 박희조(요셉), 손정호(하상바오로), 안병영(라파엘), 장자림(마리스텔라), 천승환(라우렌시오)

■ 상평동 6,100,000원

- 완납: 김미경(크레센시아), 김수진(미리암), 김종현(아네스), 박귀환(프란치스코), 배성효(다니엘), 이종우(안토니오), 장정순(루시아)
- 추가: 이성식(F.하비에르)

■ 생림선교 320,000원

- 완납: 황정숙 마리아

■ 안의선교 280,000원

- 완납: 강숙희(수산나), 박진규(바오로), 정태년(안토니오)
- 추가: 최윤정(소화 데레사)

■ 양덕동 1,300,000원

- 완납: 안양희(이사벨라), 신성주(미카엘라)

■ 옥포 15,625,000원

- 완납: 박순식(베드로), 김계순(모니카), 이준규(요셉), 장수선(M.막달레나)
- 분납: 김정순(아네스), 김태승(요한), 남성미(가타리나), 천성민(요셉), 최병철(스테파노)

■ 완월동 160,000원

- 완납: 강말순(헬레나), 이우정(크리스티나), 안효성(세레자 요한)

■ 용잠 1,150,000원

■ 월남동 4,577,696원

■ 월영 1,780,000원

- 완납: 강또금(레지나), 이승진(그레고리오), 허성배(프란치스코)
- 분납: 강나리(아니시아), 강태규(미카엘), 강화정(데레사), 곽철윤(요셉), 권기호(루시아), 권상태(비오), 김계수(즈가리아), 김근규(프란치스코), 김문환(리노), 김현숙(세실리아), 김현주(크리스티나), 김희자(안나), 민현주(헬레나), 박분선(카타리나), 박희정(엘리사벳), 이승준(그레고리오), 이영희(베르디아나), 장은실(벨라멧다), 정마리아(마리아), 정순덕(모니카), 조순옥(엘리사벳), 조현철(바오로), 최성향(펠릭스), 최영수(안드레아), 최옥환(루치오), 홍숙경(사비나), 황주연(아모스), (주)민들레 생각
- 추가: 이경숙(엘리사벳)

■ 의령 1,400,000원

■ 장평 930,000원

- 완납: 김점숙(마리아), 김재욱(야고보)
- 분납: 배현근(바오로), 변영신(요셉), 최선화(비비안나)
- 추가: 김태한(가밀로), 최창훈(베드로)

■ 중동 550,000원

■ 중앙동 380,000원

- 완납: 안효주(엘리사벳), 유양렬(파스칼)
- 추가: 신경호(카타리나)

■ 진동 120,000원

- 완납: 안병한(가롤로)
- 분납: 황정환(베드로)

■ 함안 1,442,000원

- 완납: 안준근(바오로), 이상섭(요한마리아비안네), 정영봉(레오)
- 분납: 박영순(마리아), 안상식(안드레아), 이미호(베네딕토), 정구낙(야고보)
- 추가: 안말남(헬레나), 이진희(에스텔)

■ 함양 680,000원

- 완납: 류아진(히야진따), 박상석(미카엘), 정희자(세레나), 이계호(올리엠타)
- 분납: 오준영(요셉), 김명선(노아), 이정호(가스발)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T. 055·249·7121